

오사카(大阪) 이카이노(猪飼野)의 여류시인 종추월(宗秋月)*

유 숙 자**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在日の 상처를 보듬는 모성(母性) |
| II. 종추월 시의 토양--사가(佐賀)에서 이카이노로 | IV. 在日을 넘어 |
| | V. 맺음말 |

I. 머리말

근래 들어 제일한국인 문학 혹은 작가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현재 일본문단의 중심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주목 받는 극히 몇몇의 대표작가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문학장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소설임을 알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은 제일문학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제일문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여타 장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5-A00007)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가장 대표적인 재일 시인으로서 김시중(1929-)을 꼽는 데에,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해방 직후 오사카로 건너간 이래 지금까지, 반 세기를 훌쩍 넘는 긴 세월동안 꾸준히 시작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동시에 '재일을 산다'는 것의 실존적 의미 탐구와 미래에 대한 모색을 앞장서 주창해 온 시인이다.

본고는 줄고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在日 시인 金時鐘의 시세계 -」에 이어, 국내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여류시인 종추월(宗秋月, 1944-)의 문학¹⁾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종추월 역시 오사카(大阪)의 이카이노(猪飼野)²⁾에 거주하면서 이카이노에 대한 애정 깊은 시선으로 재일한국인 특히 재일여성들의 삶의 회로에락을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아울러 소박하고도 감동적인 시어로 전달해 주고 있다.

시인인 동시에 뛰어난 에세이스트로 정평이 난 김시중과 마찬가지로 종추월은 시와 더불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재일 사회의 다양한 군상과 일상 체험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종추월의 시집으로는 『宗秋月詩集』(編集工房ノア, 1971), 『이카이노·여자·사랑·노래-종추월시집: 猪飼野·女·愛·うた - 宗秋月詩集』(プレ-ンセンター, 1984)이 있으며, 에세이집³⁾으로는 『이카이노 타령: 猪飼野タリョン』(思想の科學社, 1986), 『사랑해: サランへ・愛しています』(影書房, 1987) 등이 있다. 첫 시집이 70년도 초반에 출간된 이후 짧지 않은 공백을 거쳐 80년대 중반에 시집과 에세이집이 잇달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시인 의 관심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종추월은 재일 2세 작가이다. 80년대에 활약한 재일작가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양지(李良枝, 1955-1992)를 떠올리게 된다. 데뷔작 「나비타령」(『群

1) 종추월은 시인으로서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의 소설에 관해서는 줄고 「오사카(大阪) 이카이노(猪飼野)의 在日한국인 문학」에서 언급하였다. 출처 『在日한국인 문학연구』(월인, 2000) pp.210-235 참조.
2) 이카이노라는 지명은 1973년 이후 지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오사카 재일한국, 조선인 거주 지역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고 있다. 현재 이쿠노구(生野區)의 일부가 되었다. 줄고 「오사카 이카이노의 在日한국인 문학」 참조.
3) 종추월의 에세이는 자신의 시를 곁들여, 시에 얽힌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像』, 1982.11)을 발표하면서 일본문단의 주목을 받은 이양지는 「유희: 由熙」(『群像』, 1988.11)로 권위 있는 아쿠타가와(芥川) 문학상을 수상하며 보기 드문 여류 제일작가로서 문단의 집중 조명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아쉽게도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나 빨리 문학활동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양지의 존재는 작가의 한국 유학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고, 그의 소설은 거의 우리말로도 번역 출간되었다. 작가 이양지는 뒤늦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모국유학을 통해 우리말을 비롯 전통악기(가야금)와 무용(살풀이)을 습득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러나 「각: 刻」(『群像』, 1984.8), 「유희」 등의 작품에서 우리는 작가의 분신으로 짐작되는 제일 2세 여성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실존적 불안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문학 장르의 차이나 십여년이라는 세대차가 있긴 해도, 종추월과 이양지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在日性的 격차는 제일문학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제일 작가 이회성(李恢成, 1935-)은 종추월의 『이카이노 타령』을 일컬어 “해방후 제일조선인 문학은 과연 이 한 권의 책에 필적할 만한가”를 묻고, “종추월은 민중을 위한 살풀이를 하는 무녀(巫女)”라 하였다.⁴⁾ 시인 종추월의 시와 문장은 제일한국인 집단 거주지역인 오사카 이카이노의 생생한 삶의 현상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민족誌學ethnography”⁵⁾으로도 읽힌다.

본고는 종추월의 시집 『이카이노·여자·사랑·노래』⁶⁾를 중심으로 종추월 시세계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집 제목이 시사하는 바대로 종추월의 시는 이카이노,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제일 여성 등이 주된 테마를 이룬다. 본고의 제목에 굳이 ‘여류’시인이라 붙인 것은 결코 여류라는 제한된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특징의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4) 宗秋月, 『サランへ』(影書房, 1987) pp.254-255 참조.

5) “If modern Japanese fiction has tended to border on autobiography, her work comes closer to ethnography.” Melissa L. Wender, 『Lamentation as History: Literature of Koreans in Japan, 1965-1999』(The University of Chicago 학위논문, August 1999) p.120

6) 1971년에 간행된 첫 시집 『종추월시집』은 절판되어 입수가 힘들었다. 『이카이노·여자·사랑·노래』에는 다행히 제1시집의 대표작 24편이 재수록되어 있다.

II. 종추월 시의 토양--사가(佐賀)에서 이카이노로

종추월은 1944년, 규슈(九州) 사가현(佐賀縣)에서 태어났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 1년 전에 탄생한 사실을 두고 그녀는 “오직 재일을 사는 것, 부조리를 사는 것이 나의 생의 원점이었다”⁷⁾고 했다. 시인의 부친은 사가의 개척농민, 일일노동자로서 또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돈을 받고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척박한 땅을 일궈 만든 논밭에서 규칙적인 수확을 거둘 수 없었고, 비 오는 날은 일감이 없어 막걸리 술판을 벌이며 신세타령을 늘어놓는 아버지의 모습을, 종추월은 어려서부터 지켜보았다. “일본에 건너가 한 밀천 잡으면/ 세 끼에 한 번은 흰 쌀밥/ 명주옷을 사 가겠노라고/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으나/ 명주옷은 살 수 없어/ 선물로 가져갈 만큼 흰 쌀밥이 있다면/ 내가 일본에/ 머물쏘냐/ 내가 일본에 남을쏘냐/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중략) 밤이면/ 에헤이요-/ 막걸리 들이키며/ 에헤이요-/ 고향이 그리워/ 에헤이요-” (시 「술판(푸념하는 아버지)」⁸⁾

사가의 오기초(小城町)에서 다닌 소학교에서 종추월은 유일한 조선인 학생이었다. 일본인들 역시 가난한 개척농민이긴 했으나, 조선인과는 거주지역과 식생활,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인은 개구리를 잡아 햇볕에 말려 먹었고, 가축의 내장과 개고기를 구워 먹었다. 음식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녀는 이러한 음식을 거부하게 되었고, 조선인 촌에서 사용되던 생활어인 조선어(제주도 말)를 거부하게 되었다. 비오는 오후면 으레 벌어지는 술판이 그녀에게겐 굴욕이었다. 아리랑, 도라지 등의 노랫소리가 창피하고 듣기 싫다고 소리쳤을 때, 그녀를 호되게 나무란 것은 기모노 차림의 일본여자였다. 일본여자는 뜨내기 조선인 토목작업원의 아내였다. 그녀는 말했다. “너의 나라 노래, 너의 나라 말이 뭐가 부끄러우냐”고. 종추월은 이때 처음으로 민족-조선을 실감하게 되었다.⁹⁾

7) 宗秋月, 「人間を返せ」, 『サランへ』, p.65

8) 宗秋月, 『猪飼野・女・愛・うた - 宗秋月詩集』(ブレ-ンセンター, 1984) pp.124-126 (본고의 시 번역은 모두 필자가 한 것이다.)

9) 宗秋月, 「私の詩と生」, pp.173-175

제일한국인 1세의 일본어에 고향 말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듯이, 종추월의 부모는 제주도 말 억양이 살아 있는 유창한 규슈 말을 구사했다. 시인에게는 이 독특한 언어가 바로 일본어이자 고향의 말이며, 텃줄과 연결된 언어가 되었다.¹⁰⁾ 종추월은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오사카 말과 표준일본어를 제치고, 절박한 진심을 전달하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자신의 말투를 통해, 자신의 언어 안에 부모의 생활어(억양)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음을 자각한다.¹¹⁾ 그리고 규슈 말과 제주도 말, 오사카 말 등이 종추월의 시에 독특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종추월이 태어나 오사카로 떠나올 때까지의 시기, 즉 1944년에서 1960년까지의 규슈 사가에서 구사되고 있었을 ‘인민(人民)의 일본어’와 다시 오사카의 이카이노라는 조선인 밀집지역에 머물며 체득했을 제일조선인의 일본어가 융합되어 종추월 시의 모태, 모어(母語)가 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¹²⁾ 그가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거슬린다면 ‘민중’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좋을 듯한데, 일본의 고도성장이 추진되는 60년 이후에는 점차 그러한 언어를 찾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카이노 특유의 언어표현을 생생히 담은 종추월의 시와 문장은, ‘일본어이면서 비(非)일본어’로서 기존의 일본어를 이화(異化)시키는 작용을 한다.¹³⁾

종추월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인 1959, 60년 경에 일본은 ‘고도성장 정책’을 내걸고 지방의 중졸 인력들을 대거 대도시로 끌어들이었다. 몇 번의 취직시험과 면접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조선인 종추월은 그 대열에 끼지 못했다. 조선인 이기에 당하는 차별을 절감했다. 사가 시내의 방적공장 여공조차 될 수 없어, 그녀는 혼자 밤기차를 타고 오사카 이카이노로 왔다. 왜 이카이노인가. 이카이노는 일본에서 가장 큰 조선인 밀집 지역인 동시에, 제주도에선 일본으로 건너온 부모가 맨 처음 상륙한 땅이기도 했다.

10) 宗秋月, 「へその緒と結びついた言葉」, 『猪飼野タリョン』(思想の科學社, 1986) p.193

11) 宗秋月, 위의 글, pp.193-194

12) 鶴見俊輔, 「私の詩と生(座談會)」, 『猪飼野・女・愛・うた - 宗秋月詩集』, p.206

13) 川村 湊, 「詩人たちの‘日本語’」,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在日朝鮮人文學論』(平凡社, 1999) pp.265-266

“열여섯에 규슈의 사가를 떠나 오사카에 도착했다. 숙식을 하며 일하는 양복
가공업 가내공장에서 사가의 사투리(佐賀弁)가 일본어로 이해되지 않았기에 자
폐증처럼 글을 썼다. 게다가 자유로운 시간을 소유하기란 변소 밖에 없었던 터
라, 재래식 변소에서 신문 광고 뒷면에다 써 내려간 글자에다 목소리를 담았다.
'똥 리얼리즘'이었다. (중략) 인간이야. 살아 있어. 조선인이야. 여자야, 하고 글
자에 목소리를 담았던 것이다.”¹⁴⁾

이로써 종추월 시의 출발은 조선인으로서, 여자로서의 인간 선언이 되었다.
궁핍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육체적 노동을 체험하는 가운데, 시인의 언어
또한 땀과 눈물과 절망이 배인 시어를 낳았다. 양복가공업을 하는 조선인 집에
머물며 일을 시작해 받은 첫 급료는, 공중 목욕탕 표 10장을 포함해서 한 달 천
엔. 고향을 떠난 지 2, 3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기차삿을 마련해 귀향할 수 있
었다.¹⁵⁾ 종추월의 시는 노동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시다. 종추월의 시는 문단의
제복을 걸치지 않은 언어로 쓰여진 시이며, 듣고 있으면 생활상의 심정이 전해
져오는 시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후 종추월은 포장마차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팔거나, 하리코(貼子)¹⁷⁾, 스벅
을 경영하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하리코 역사(哀史)」라는 시는 그녀 자
신 하리코 일을 할 때 쓰여졌다.

언제부터였던가 법유(法儒)와 유열(愉悅) 사이사이에
나의 나날은 깊숙이 파묻혀

내가 천직을 찾지 않고
내가 천직을 찾을 곳 없어
나의 천직은 샌달 하리코

14) 宗秋月, 『私の詩と生(座談會)』, 위의 책, p.66

15) 宗秋月, 위의 글, p.175

16) 鶴見俊輔, 『詩集の發刊によせて』, 위의 시집, p.222

17) 샌달 산업의 한 공정으로 고무풀을 발라 앳토코, 롤이라 부르는 회전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리고 접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여자를 가리킨다. 이 작업은 여자로
서 비교적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어 이카이노 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
업이지만, 지독한 신나 냄새 때문에 직업병으로 백혈병을 얻을 수 있다. 하리코
는 한 켄레 당 얼마씩 받는 보합제.

나를 잡는 손을 부끄러워하는 억센 손은 없고
 나보다 더한 중노동이 있을까 싶고
 나를 겁내는 직업병이 있어 피도 얼어붙어
 나는 종일토록 구두 밑창을 핏고 핏아
 나는 작은 환기창에 숨막혀
 나는 접착제와 신나에 푸욱 잠긴다
 나를 풍기는 육친이 아닌
 나를 너털케하는 기둥으로 받들어
 나를 괴롭히는 보합제(歩合制)를 너끈히 받아들여
 나는 신부 살림으로 앳토코 챙겨넣고
 나는 시집을 가도 물을 손에 들고
 나는 아이를 위해 일을 계속해
 나의 뒤를 잇는 나 나
 나를 뒤쫓는 쇠약함이 있고
 내게 구걸하는 신체에 약을 주어
 나와 더불어 부식(腐蝕)한 수많은 에이프런
 나와 공장의 차양은 경쟁하듯 씹어든다
 나와 고무풀이 함께 한 일생
 나, 냄새에 취한 채
 나, 마침내
 나, 천국에 갈 거야¹⁸⁾

이미 고향 사가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취직 차별을 체험한 종추월에게 '천직'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현실과는 무관하다. '천직을 찾을 곳 없어' 아예 '천직을 찾지 않고' 차라리 시인은 '나의 천직은 샌달 하리코'라고 규정짓는다. 그러나 힘겨운 일상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변소 안에서 신문 광고지 뒷장에 썼다고 하는 그녀의 시 「재욱이 아줌마」 「김치」에는, 이카이노 특유의 유머 감각과 생활의 건강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마흔두서너 살 남짓/ 재욱이 아줌마의/ 커다란 배가/ 또 부풀어 올라/ 이웃
 들은/ 입모아 수근수근/ …/ 이번이 벌써 열한번 켜라지/ 하나 더 보태면 한 다
 스가 되겠네/ 정말 대단해 놀라워/ …/ 열입곱 먹은 딸 명선이 말하길/ 엄마 부
 쪼렷단 말야/ 이제 그만 낳아요/ …/ 안경 렌즈 닦는 돈벌이하던/ 재욱이 아줌
 마가 딸을 호통칩니다/ …/ 년 학교 다니면서/ 이런 말도 듣지 못했나/ 미제(美

18) 宗秋月, 「貼子哀史」, 앞의 시집, pp.109-110

帝)는 삼역/ 일본은 일역/ 중국은 칠역만 명인데/ 조선은 고작 사천만이야/ 우리집 자식이 하나 늘어도/ 어찌 이리도 적은 거냐/ 아무리 낳고 또 낳아도/ 농업 공업 일손 부족한 조선인데/ 너는 뭐가 부끄러운 게냐/ .../ 재옥이 아줌마 배에/ 귀기울이면/ 불끈불끈/ 태동이 들린답니다/ .../ 재옥이 아줌마의 배에/ 조선의 숨결이 깃들었어요/ 아마 틀림없이.”¹⁹⁾

시 「김치」는 김치의 새빨간 빛깔과 얼얼한 매운 맛, 부엌칼로 썰 때의 사각 사각 소리 등이 어우러져 시 전체가 무엇보다 감각에 호소하며 읽혀진다. 더구나 맨 마지막 구절은 “<너희들/ 어서 일어나>라고 채근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낯선 땅에서도 여성(어머니)의 손끝에서 고향(조국)의 입맛은 되살아나고 창조된다. 이카이노에서 종주월은 조선여성의 힘을 발견하고, 무한한 애정을 담아 이를 기록하고 있다.

Ⅲ. 在日의 상처를 보듬는 모성(母性)

오사카 이쿠노구의 제일한국 조선인 거주자 가운데는 제주도 출신이 약 8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일합방’ 이후에 오사카의 방직공장이 제주도와 경상남도 진주(晋州)의 여성노동자를 고용한 것을 시작으로, 1920년대에 들어서는 가족과 친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제일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오사카의 제일조선인 사회의 출발에 제주도 출신 여성들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²⁰⁾ 흔히 알려진 바대로, ‘제주도 남자’ ‘제주도 여자’라는 말이 이곳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이는 각각 ‘일하지 않는 게으른 남자’ ‘일 잘하는 여자’로 해석된다. 즉, 남자보다 여자의 손에 가정의 생계가 달려 있고 여자가 강한 생활력을 보인다.²¹⁾

19) 「チエオギおばさん」, 앞의 시집, pp.90-92

20) 宋連玉, 「在日女性の戦後史」, 『環』(藤原書店, 2002 Autumn) p.167

21) “그래서일까/ 여자의 역척은 각별하다/ 절구통만한 골반에는/ 네다섯 자식이 딸려/ 일없이 먹고 지내는/ 사내 하나는 별문제. (중략) 사내가 사내인 것은/ 자식한테 큰소리칠 때뿐/ 사내의 사내도 생각하면/ 어엿한/ 아비.”(김시종의 시 「보이지 않는 동네: 見えない町」, 『이카이노 시집: 猪飼野詩集』, 집성시집 『원아

이카이노에서 성장한 재일 2세 작가 원수일(元秀一, 1950-)의 창작집 『이카이노 이야기: 猪飼野物語』(草風館, 1987)는 「제주도에서 온 여자들」이라는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건너온 재일 1세 어머니들의 억척스럽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낙천적 유머감과 더불어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 이처럼 이카이노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활약과 존재성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남성의 존재는 아버지 혹은 아들의 위치에서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우월감을 간신히 유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무기력하고 나약할 뿐이다. 남자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울분을 달래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고 폭력을 휘두르기 일췌다. 종추월 자신, 일상의 대화가 서툰 남편의 폭력이 때로 가장 알아듣기 쉬운 형태의 말이라고 고백한다.²²⁾ 이카이노의 여성들은, ‘재일’로서 ‘여성’으로서 안팎으로 이중적인 차별과 억압을 감수하며, 현실의 절망을 ‘팔자’에 대한 신세타령으로 회색시키고 받아들인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풍습이 고스란히 지켜지는 이카이노에서, 결혼한 여성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 결혼 후에 여자의 이름은 상실되며 ‘누구(자식 이름)의 어머니’로 불릴 뿐이다. ‘어머니’로서 살아가려 할 때, 삶의 의미는 자식에게로 전이된다. 자식을 위해 아무리 힘든 육체적 노동이라도 감수한다. 이카이노 ‘어머니’들이 자신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찾는 곳은 제주도 무당인 신방(神房)이다. 그리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신방에 의지하고 싶어한다. 집을 개축, 신축하거나 집안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병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한 온갖 형태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혹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은 신방의 힘을 빌린다.²³⁾

「내가 사랑하는 조선의 여자들」²⁴⁾이라는 글에서, 종추월은 자신을 조선의 여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확신은 다름아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가 되기 이전까지는 단지 ‘여자 예비병’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의 시: 原野の詩』(立風書房, 1991)에 수록) pp.126-127

22) 「へその緒と結びついた言葉」, p.195

23) “한 번 시작했다 하면/ 사흘 낮밤/ 징소리 북소리 요란한 동네/ 지금도 무당이 날뛰는/ 원색의 동네.”(김시중의 시, 「보이지 않는 동네」, pp.133-134)

24) 宗秋月, 「我が愛する朝鮮の女たち」, 『猪飼野タリオン』, pp.8-25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면서 윤회(輪廻)와 전생(轉生)에 자신의 육체가 관련 맺는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여자는 자기에(自己愛) 이외의 사랑-모성(母性)을 획득하게 되고, 이로써 자신의 모성이 제일 1세인 자신의 어머니의 모성과 맞물리는 사실을 피력한다. 나아가 남자는 여자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여자는 남자를 모성 안에 끌어안음으로써 평상을 유지하며, 이것이 종추월에게는 미(美)로 비쳐진다.

그러나 종추월이 주장하는 모성이 ‘출구 없고 도망갈 곳 없는’ 제일 남성의 폭력을 위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인간의 자리를 남자(남편)에게 내준 제일의 ‘어머니’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모성이 과연 스스로를 구원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카이노 타령』에서 소개되는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남편과 자식 모두에게 희망의 근거를 상실한 어머니의 일생을 보여준다. 술과 여자와 히로뽕에 빠진 남편은 집에 오면 무자비한 폭력을 아내에게 행사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울면서 “너희들이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야”라는 말을 자식에게 되풀이한다. 아버지의 죽음만이 어머니에게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성장한 아들 역시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아들은 자신의 아내 또한 어머니와 흡사한 처지를 깨닫는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어머니가 한 말은, “너희를 낳아 손해 봤어”였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벌이는 죽은 어머니 연배의 노파와의 성교에서 아들은, 자식을 위해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살았을 어머니의 폐쇄된 성(性)을 떠올린다.

‘제주도 여자’였던 시인의 어머니 또한 시 「막걸리·도부로쿠·니고리자케」²⁵⁾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엄마는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었다.
아버지는 단지를 끌어안고 술을 마셨다.
밥그릇에 밥을 담지 못할망정
밥알이 뜬 막걸리를 그릇에 담은
여자이며 엄마인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남자에게 우선 양보하지 않으면

25) 도부로쿠, 니고리자케, 두 단어는 일본어로 막걸리를 뜻한다.

하루도 위태로운 그날의
무사함을 기도하듯 마음 졸이며
단지 안에 손을 넣어 술을 퍼담았다. (중략)
일 초, 하루, 일 년이라도,
남자보다 오래 살아야겠다고
양보해온 인간을 다시 빼앗고 싶다고
한(恨)을 끌어안고 한을 키워 한을 없앤
여자 삼계(三界)에 집 없으니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상냥한 엄마의 성(性)
슬픈 상냥함이 저지른 성(性)이
낳은 다음 세대에 남긴 유산은
막걸리·도부로쿠·니고리자케 빛깔의
일대(一代)의 뼈. 하얀 뼈. 파묻은 흙.²⁶⁾

종추월은 시 외에도 단편소설 「이카이노 태평 안경: 猪飼野のんき眼鏡」(1987.11)과 「불꽃: 華花」(1990.3)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제일 2세 여성은, 1세 어머니들의 억압받는 삶을 거부하고 탈피하려는 내면적 의지를 키우는 동시에, 현실에서의 실현 불가능성에 맞닥뜨린다. 남편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주인공은 제일의 업(業)을 답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원시 때부터 간직해 왔을 조선여자의 모성, 잉태하고 양육시키는 역할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갈망하지만, 그 꿈은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발전적인 대안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일의 여성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카이노를 대표하는 여류작가 김창생(金蒼生, 1951-)²⁷⁾의 단편 「빨간 열매: 赤い實」(1988)와 「세 자매: 三姉妹」(1990)는 종추월의 단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들 작품에서의 제일 2세 여성은, 전형적인 제일 1세 아버지들처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마감하고, 여성이자 독립된 주체로서의 한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26) 宗秋月, 「マッコリ・どぶろく・にがり酒」, 『猪飼野・女・愛・うた - 宗秋月詩集』, pp.62-65

27) 김창생은 종추월의 시집이 처음 나왔을 때 「재욱이 아줌마」, 「김치」 등에 보이는 대범한 시어가 기뻐했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빌린 그 시집을 노트에 옮겨적었다고 했다. 「座談會 在日文學はこれでいいのか」, 『民壽』(民壽社, 1987.冬) p.77

표명해 보인다.

종추월의 에세이나 시를 통해 우리는 주로 제일 1세 여성(어머니)들의 순탄치 않은 삶의 궤적과 양상을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작가의 따뜻한 애정과 연민의 시선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카이노의 제일 여성은 유교적인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억압받는 존재이지만, 모성의 확대를 통해 자신은 물론 제일 남성이 지닌 ‘제일한다는 것’의 불우성을 포용하려는 관대함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카이노의 코리아타운 시장이 증명하듯 이카이노를 이카이노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다름이 아닌 여성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정도의 억척스러움”²⁸⁾으로 이카이노의 미각과 습관과 인습을 자식들에게 전승시키고 있다.

IV. 在日을 넘어

제일 평론가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는 ‘제일’의 의미에 대해 “공동체의 틀 바꾸기에 있음으로써 최초의 불우성(不遇性)이 생겨나는, 세계에 대한 이화감(異化感)이라는 하나의 사건현장”²⁹⁾이라고 규정하였다. 재일을 보는 다케다의 시각은 자신의 제일문학 연구에 계기를 부여한 작가 김학영(金鶴泳, 1938-1985)의 문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니와, 제일 문학 가운데 특히 이카이노 출신의 문학자들의 경우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제일’을 산다는 것, ‘제일’이 무엇인가를 새삼 숙고하게 된다.

시인 김시중에게 ‘제일’은 북이냐 남이냐라는 선택지가 아니며, 남북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열린 공간이자 실존의 장(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복안(複腹)적 사고에서 출발된 그의 제일론은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제일의 역할과 가능성의 길을 터놓는다. “나에게 제일조선인이란, 자신의 나라 즉, 북조선과 남조선을 동일한 시야, 하나의 시야에 수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정치신조의 차이가

28) 宗秋月, 『朝鮮女の三位一体』, 『猪飼野タリョン』, p.174

29)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據』(筑摩書房, 1995) p.268

반드시 동떨어진 서식 장소,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곳의 필연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조선에서 남북이 동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로 '제일'이 있음은 거듭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내 식으로 말한다면, '제일'이 이미 하나의 '조선'이라는 말이 된다. 고유의 문화권에서 벗어난 '제일'을 산다는 것은 어떤 부채나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선에 없는 것을 키우며 살아가는 방식이며, 5천년 역사에도 없는 것을 조선에 끌어들이는 가능성을 산다는 시점이 개발될 때, 젊은 세대들이 조국과 멀어졌다는 사실로 허무에 빠지는 일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오늘날 단절된 '조선'을 되돌리는 활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⁰⁾

제일 사회의 사상적 리더라 할 수 있는 김시중의 이러한 선구적인 제일론은, 종추월의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제일'에 대한 시각은 본국과 일본을 향해, 나아가 세계를 보는 열린 시각으로 확대된다. "제일하는 것에 의미를 찾는다면, 제일의 위치에서 두 개의 분단된 본국의 근대사와 현대사, 소국가(小國家)를 희생시킨 세계사를, 거기에 사는 민중을, 바로 동일한 시야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³¹⁾

그러므로 종추월은 본국의 정치 변동이나 사회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함께 시대적 아픔을 나누고자 열망한다. 종추월에게 1980년 광주사건은 제일의 역사와 본국의 역사가 중첩되어 대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본국의 민중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을 테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 놀라움. 그 분한 마음.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는 쪽에 위치해, 그 자랑스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 자신을 예측하고, 그러나 그날도 밥을 먹었던, 산다는 것의 부끄러움에,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가, 내 육체를 통과한 최초의 역사였다. 제일과 본국의 역사가 한 쌍이 되었다."³²⁾

첫 번째 시집이 '제일'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면, 종추월의 두 번째 시집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언어인 일본어를 무기로 혼자 일의

30) 金時鐘, 「なぜ“日本語”か」, 『『在日』のはざままで』(平凡社, 2001) pp.350-353

31) 宗秋月, 『サランへ』, p.240

32) 宗秋月, 『人間を返せ』, 앞의 글, pp.66-67

킨 반란이었으며, 따라서 생존의 외침에서 반란으로의 언어의 기능변화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³³⁾

같은 5월에 살면서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함께 죽을 수 없는 삶이 부끄러웠다.
지도 안에서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광주여. 나의 광주여.
동시대를 산 자들이여.
지복(至福)의 죽음을 선택한 자들이여. (중략)
목격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나의 在日의 삶, 그러나
이런 저런 고통을
말하지 않으려다.
슬픔도 말하지 않으려다.
기쁨은, 나의 배로
윤회를 맺은 것뿐. (『나의 윤회의 5월』 부분)³⁴⁾

당시 광주사건은 제일한국 조선인에게도 커다란 관심과 저항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다. 본국에서 발생한 엄청난 비극 앞에서 ‘제일’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무기력함을 김시중 또한 다음과 같이 읊은 바 있다. “거기엔 늘 내가 없다/ 있어도 아무런 지장 없을만큼만/ 나를 에워싼 주변은 평온하다./ 사건은 으레 내가 없는 사이 터지고/ 나는 진정 나일수 있는 때를 헛되이 놓치고만 있다.”³⁵⁾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음’과 ‘거기엔 늘 내가 없다’라는 공통의 인식은, 그 자리에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제일’과 조국간의 거리를 한층 의식하게 만든다. 그러한 거리감을 메우기 위해 종추월은 그 무렵 자신이 출산한 생명을 5월에 희생당한 이의 죽음과 윤회의 사고(思考)로 맺음으로써 유대의 실마리를 마련한다.

33) 宗秋月, 위의 글, p.66

34) 宗秋月, 『我が輪廻の五月』, 『猪飼野・女・愛・うた - 宗秋月詩集』, pp.32-33

35) 金時鐘, 『綴せる時のなか』, 『光州詩片』(福武書店, 1983) p.40

종추월은 1970년대 한국의 군사 독재 정부의 치부를 비난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본국의 문학과 학생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 나아가 일본인들 또한 한국 민중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를 호소하면서, 일본의 변화를 갈구한다. “나의 조국이며. 나의 본국이며. 내 동포의 나라여.” “나는 그 나라와 동시대를 살 것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일의 장(場)에서 함께 살 것을 선택합니다”³⁶⁾라고 종추월은 통곡하듯 조국에 대한 연가를 토해낸다.

나는 그대가 애타게 기다리는 봄을 지금
감은 눈꺼풀에 소유해 보았다.
그리고 그대의 겨울을 소유해 보았다.
눈물로 젖은 뺨에 입맞춤도 했다.
그대 눈동자의 깜박임에
내 깜박임을 맞추어 보기도 했다.
토하는 숨 들숨 당신의 호흡을
내 호흡과 겹쳐도 보았다.
그대의 기쁨 그대의 슬픔을
그대의 배고픔 그대의 분노를
내 오장육부가 감지해
나는 늘 아픔을 느꼈다.
나는 늘 그대 곁에 있었다.
나는 늘 그대 이름을 불렀다.³⁷⁾

이 시는 「바람아 실어라 나의 연가를」이라는 제목의 시 일부분이다. ‘나’는 ‘그대’와 함께 살고 웃고 울고 분노하고 싶어한다. 시인은 본국의 민중들과 재일을 넘어선 공감대를 나누길 희망한다. 시인에 따르면 재일을 넘는다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장(場), 상황을 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수라(修羅)인 재일을, 우선 살고, 우선 사는 것, 즉 투쟁의 연장선이라는 선(線)에서 맺어지는 본국민중의 고통스런 투쟁에 대한 동시대감이다. 일체감이다.”³⁸⁾ 이러

36) 宗秋月, 『我が慟哭の戀歌』, 『サランへ』, p.99

37) 宗秋月, 『風よ運べ我が戀歌を』, 위의 책, pp.100-101

38) 宗秋月, 『サランへ』, 위의 책, pp.102-103

한 종추월의 '재일'의식은 확고한 민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리고 시인의 '재일'은 조국을 향해, 폐쇄된 일본 사회의 내부를 향해, 세계를 향해, 크고 깊게 열려 있다.

V. 맺음말

종추월은 재일 2세 여류시인이다. 연배를 보자면, 재일 2세대 작가인 이회성과 김학영 그리고 신세대(3세대) 작가로 주목받은 이양지의 중간 지점에 그녀의 창작은 위치한다.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일본문단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높은 문학성을 인정받은 이들과는 달리, 종추월은 오사카의 이카이노라는 주변부에 삶의 근거지를 마련하며 힘겨운 노동의 한복판에서 시를 썼다. 머리로 쓰여진 시와는 달리, 그녀의 시에는 육체적 피로와 가난, 향수, 한(恨)이 짙게 배어 있다. 또한 제주도 말(言語)과 오사카 말이 한 데 뒤섞인 독특한 이카이노의 생활어 표현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재일한국 조선인이 지닌 고유의 정서와 정감을 전해주는 종추월의 시는, 기존의 일본어가 구축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녀의 시와 에세이를 통해 특히 돋보이는 것은, 이카이노에서 살아가는 재일여성들의 굴곡 많은 삶의 회로에 대한 시인의 따스한 애정이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모성의 힘으로 감싸안으려는 여성의 태도는, 어쩌면 더 이상 상처입기를 거부하는 자기 보호본능일지도 모른다. 작가 원수일도 『이카이노 이야기』에서 제주도 출신의 이카이노 재일 1세 어머니들의 군상을 실감나게 그린 바 있다. 눈물 속에서 웃음과 삶의 희망을 찾는 그들의 생명력은 오사카 이카이노를 이카이노답게 형성시킨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김창생의 소설에서 우리는 재일 1세 어머니들이 걸어온 희생과 복종의 삶을 거부하며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주장하고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와 삶을 획득하기 위해 힘겨운 홀로서기를 선택하는 재일 2세 등장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에 주체적인 존재가 되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한편 1980년의 광주사건은 종추월의 창작에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였다. 시인에게 재일을 산다는 것의 실존적 의미 모색은 조국과 일본 사회의 심층을 응시하며 인류에적인 시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다만 두 번째 시집 이후, 그녀의 창작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아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주제어: 오사카(大阪) 이카이노(猪飼野), 재일(在日), 재일한국인 문학, 재일한국·조선인, 광주사건, 정체성, 모어(母語), 일본어, 모성(母性), 재일 1세대, 여성성, 제주도

참고문헌

- 金時鐘, 『光州詩片』, 福武書店, 1983.
金時鐘, 『原野の詩』, 立風書房, 1991.
金時鐘, 『「在日」のはざままで』, 平凡社, 2001.
金蒼生, 『赤い實』, 行路社, 1995.
宋連玉, 『「在日」女性の戦後史』, 『環』, 藤原書店, 2002 Autumn(vol. 11).
元秀一, 『猪飼野物語』, 草風館, 1987
宗秋月, 『猪飼野・女・愛・うた - 宗秋月詩集』, プレインセンター, 1984.
宗秋月, 『猪飼野タリョン』, 思想の科學社, 1986.
宗秋月, 『サランへ・愛しています』, 影書房, 1987.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據』, 筑摩書房, 1995.
川村 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在日朝鮮人文學論』, 平凡社, 1999.
季刊 在日文藝 『民濤』, 民濤社, 1987.11(冬).
Melissa L. Wender, 『Lamentation as History: Literature of Koreans in Japan, 1965-1999』, The University of Chicago 학위논문, August 1999.
유숙자,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在日詩人 金時鐘의 시세계 -』, 『한림일본학 연구』 제7집, 2002.12.
俞淑子, 『在日한국인 문학 연구』, 月印, 2000.

<Abstract>

Chong Chu-wol, A Korean Poet in Osaka
Ikaino, Japan

Yu, Sook-Ja

A second-generation 'Zainichi'(在日, Korean resident in Japan) poet, Chong Chu-wol wrote poetry and essays abou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their everyday experiences in the Korean community in Osaka Ikaino. The collections of her poems are *the Collections of Poems by Chong Chu-wol* (1971) and *Ikaino/Woman/Love/Songs: the Collection of Poems by Chong Chu-wol* (1984). Her collections of essays are *Ikaino Taryong* (1989) and *I Love You* (1987). There was a relatively long gap after the publication of first collection of her poems at the beginning of 1970 and the second collection of her poems and the collections of her essays that were published in the middle of 1980's; this gap had to do with her interest i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at the time.

In the history of the literature of Koreans in Japan, Chong Chu-wol's works are at the mid-point between Ri Kai-sei (1935-) and Kin Kakuei (1938-1985) --second-generation Zainichi writers-- and Yi Yang-ji (1955-1992), the highly celebrated new-generation (3rd generation) writer. Unlike these elite writers who attended university and who were active in literary circles and recognized for their literary talent, Chong Chu-wol was based in a humble area on the outskirts of Ikaino and wrote poems while making a living with hard labor. Accordingly, physical fatigue, poverty, nostalgia and regrets deeply color her poems. In Chong Chu-wol's poems, Ikaino's common language--a unique mixture of the dialects of Jeju Island and of Osaka--comes to live conveying the unique sentiments and emotions

of Koreans living in Japan, defying the other constructed by the Japanese language and exploring new possibilities.

What should be particularly noted in her poems and essays is the poet's affection for the emotions of the Korean women leading a tortuous existence in Ikaino. Although Korean women in Ikaino tend to be doubly oppressed under the Confucian patriarchy, they are broad-minded enough to extend their motherly love to the Korean men suffering in the adverse conditions of 'living as Zainichi'. The women's willingness to embrace the men while enduring their violence may very well be an expression of self-protection refusing to be hurt further. Won Soo-il (1950-), the writer, also depicted realistically Ikaino's first-generation Korean mothers from Jeju in hi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Ikaino Stories*. To be sure, their love of life that seeks laughter and hopes in tears has helped build Ikaino of Osaka what it is.

But, in a short story by Kim Chang-saeng (1951-), we should also note the second-generation Zainichi protagonist who refuses the lives of sacrifices and obedience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mothers and chooses to stand alone, however difficult it may be, to have her own voice and life. This is an expression of her will to lead her own life rather than subjecting it to others.

Chong Chu-wol reacts sensitively to the political changes and social trends in Korea in her desire to share the pain of the era with her compatriots. To the poet,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was the juncture where the history of Zainichi and the Korean history intersected. She lives the life of Zainichi but yearns to share the pain of the struggling compatriots in Korea, and thus to 'transcend the being of Zainichi'. The poet's existential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as Zainichi takes on the perspective of the love of the humankind as she looks deeply into the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20 한국문학논총 제 34 집

Key words: Osaka Ikaino, Zainichi(Korean resident in Japan), Literature of Koreans in Japan, Gwangju Uprising, identity, femininity, the first-generation Korean mothers, Jeju Island